

‘눈 먼 돈’ 전략한 장흥댐 수변구역 지원금

10년간 매년 15억원 지원...마을별 나눠먹기식 배분 말쑥
‘부정 사용’ 주민 4명 사기죄 처벌받아 8천만원 환수 조치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 지원금의 사용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부분 행사성 경비와 소득사업 명분을 내세워 마을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면서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등 각종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16일 장흥군과 장흥댐 수물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환경부(영산강환경영역청)와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매년 15여억원에 달하는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주민숙원지원사업은 댐 수물로 인한 각종행위제한에 따른 보상개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이 행사성 경비와 소득사업 명분으로 마을별 나눠먹기식

으로 집행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장흥댐 수변구역인 유치면 일부 주민들이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집행된 ‘수변구역주민숙원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 등으로 주민 4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8000여만원을 군 당국이 환수조치토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이들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매년 직·간접 방식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표고제배를 하지 않는 일부 주민이 표고제배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직접지원비는 생활용품 구입용 개별 카드로 지원되고 있으며, 간접지원비는 마을 단위지원사업(수질개선, 소득증대, 복지증진)과 먼 단위 광역사업으로 활용하라는 지원규정이 있다.

환경부는 올해도 유치면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접지원금 6억6000만원과 간접지원금 7억896만원 등13억6800만원을 비롯한 수자원공사의 먼 현안사업비 9300만원 등 총 14억6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수자원공사측이 수변구역 지원사업비와는 별도로 댐주변 지역(유치, 부산, 장평, 장동면, 장흥읍) 주민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매년 4억원을 장흥군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주민 4명이 부적절한 수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마을총회와 각 마을 이장단으로 구성된 먼추진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

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행정당국도 확인과정 등을 소홀히 하다보니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자원공사가 매년 지원하는 먼 현안사업 지원금(2016년 기준 9300만원 지원)도 면민의 날 행사와 ‘애향제’ 행사에 노래자랑, 불꽃놀이, 이벤트성 낭비성 경비로 지출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선 수물민을 위한 내실있는 지원금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김한석 장흥 유치면장은 “주민들 사이에 단순 보상금이라는 의식이 강해 개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을 설득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미래발전을 이끌 ‘먼현안 광역사업’ 등에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한예종 ‘문화 인력 양성’ 맞손

12월까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콘텐츠 개발

강진군이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손을 잡았다.

강진군은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앞두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오는 31일부터 12월 27까지 10주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문화예술콘텐츠 제작 역량을 지역사회에 접목해 문화발전을 견인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전담 교수진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연극인 교수인 이상우 연출가

와 미술원 김경곤 교수가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한 지역 콘텐츠 개발을 강의할 예정이며, 무용원 전수환 교수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기획 분야에 대해 강의를 하는 등 예술 각 분야에서 실무와 현장능력을 겸비한 한예종 교수진이 함께한다.

매주 4일간(월, 화, 금, 토요일) 매일 6시간씩(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강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실제로 문화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만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교육에 대한 신청안내 및 접수는 강진군 미래산업과 읍면사무소(061-430-3061)이나 한국예술종합학교(공연전시센터 02-746-9496)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오늘은 모델이라 불러주요” 강진군 오감통 강진시장에서 지난 13일 주고객인 60~80대 주부와 어르신들이 패션쇼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읍 보은로 3길 등 2곳 일방통행 해제

강진군이 보행자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읍시가지 일방통행로를 해제했다.

강진읍 보은로 3길(옛 극장동) ‘동광당 금은방 사거리~세무서 사거리’구간과 ‘강진읍 느티나무 소주방~동서빌라 사거리’구간 등 2개 구간의 일방통행로가 해제되고 중앙초등학교 앞 ‘서문정사거리~동창주요소삼거리’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 로 하향하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근 상인이 주축이 된 극장동 일방로 해제 추진위원회는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인한 지역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강진읍 보은로 3길(옛 극장동) 일방통행구간 해제를 건의했다.

또 강진중앙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앞 해당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바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마한, 그 역사의 숨결을 느끼다

영암 마한축제 21~22일 시종 마한문화공원

‘2016 마한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마한의 숨결! 문화를 깨우다’를 주제로 영암군 시종면 마한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영암군 마한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유인학)가 주최·주관한 마한축제는 기원전 2세기경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마한의 찬란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나라 동해·남해·서해 등 3대 해신제 중 유일하게 보존되는 ‘남해신사 해신제’를 시작으로, 중국 용출 등 외국 공연팀을 초청해 마한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품격있는 축제로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한의 정체성에 중점을 두고 개막행사에서 펼쳐지는 마한춤 퍼포먼스와 전남도립국악단 초청공연, 마한읍면 어울마당등의 문화공연과 미니 옹관제작 체험, 마한문신체험, 아기사슴 만들기, 마한역사 마차체험, 마한보물찾기, 미니고분 쌓기 등도 준비돼 있다.

또 최근 영암군에서 발간한 마한역사(중·고학생용) 교재를 바탕으로 ‘도전! 마한밸류즈’를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마한 역사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가득



하다.

유인학 마한축제 추진위원장은 “마한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영암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면서 “특히 2000년전 영산강유역의 영암땅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마한의 숨결을 이번 축제를 통해 새롭게 느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기자 jbh@kwangju.co.kr

‘영랑생가 포엠 콘서트’ 국비 2억 확보

강진군 콘텐츠 5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

강진군 시문화과기념관이 기획한 ‘영랑생가, 시·애 물들다!’프로그램이 내년도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5년 연속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추진한 ‘2017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시문화과기념관이 제출한 ‘영랑생가, 시·애 물들다!’ 프로젝트가 지속형 콘텐츠로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시문화과기념관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매월 테마를 달리해 추진해온 ‘영랑생가, 시·애 물들다!’프로그램은 주민 참여형 퓨전 인문학 콘서트를 비롯한 어린이 시인 학교, 영재 인문학 교실, 영상으로 만나는 영랑생가의 4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영랑생가(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52호)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생생 문화재 사업’은 단순히 문화재를 멀리서 바라보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생생 문화재 사업은 바라만 보는 문화재가 아니라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문화재 안에서 직접 소통하고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영랑생가를 알리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연계해 인문학적 사유를 가미한 품격 높은 콘텐츠 구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토 500평, 건 904평
(연구실, 본사건물, 경영컨설팅 사무실 최적합)
최고급 시설 / 주차 완비(60대)
※ 분할 등기 가능 ※

▶ 감정가 55억
▶ 매 가 38억
▶ 대 출 27억 가능

※ 보증금 6억 월수익 3,000만 ※

▶ 실투자 5억

1층(상가) 120평(식당 입점완료)
2층~7층(룸 56개) 오피스텔 및 사무실
8층(41평) 고급룸 2개 스카이라운지 전망최고

사무실 임대

첨단 소형 연구실(사무실) 임대

◆ 입주 예정일 11월 중순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평택 토지 전문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미군기지 ~ 5만평) (평택항) (현덕지구 70만평)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대 후회 없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전원주택지 분양

송탄역, 진위역 5분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조건

※ (총 7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 개발시 순수익 10억

▶ 전체 매가 16억

※ 토지 2억 ~ 30억까지 다량 확보 ※

경기도 화성시 A.P.T 투자 가장적합하게 드립니다
※ 실투자 1천만원
A.P.T 34평 ▶ 매가 2억 4천만원
(용 2억 보3천 월 70만)

010-7384-7800

010-6670-9800

062-511-7800 010-6832-9700